



전주매일

“청년문제 해결 방안 농촌이 새로운 돌파구”

송하진 도지사, 국무총리 주재 청년정책조정위서 강조
“뉴프런티어 사업인 스마트 농업 등 농촌 지원확대 필요”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14일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참석해 "청년문제 해결 방안으로 농촌이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며 "뉴프런티어 사업인 스마트 농업 등 농촌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지사는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 자격으로 참석해 "농업·농촌은 일자리, 주거, 복지 등 다양한 청년문제 해결의 새로운 블루오션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관리 등 5개 분야

376개 과제가 수립된 '2022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안)' 안전 등에 대해 토의 및 의결을 진행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어려워진 청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마련된 것 같아 감사하다"며 "자치단체 또한 지역 청년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정책을 활용할 수 있도록 청년센터 등 중간 지원조직과 협업, 수립된 정책을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주거와 경기침체 등 고단란 도시생활에 지친 청년들이 기회와 행복을 찾아 농촌으로 내려오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첨단기술을 활용

한 스마트팜 등 농업이 새롭게 고부가가치화 되는 상황은 IT에 친숙한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최근 뉴프런티어 사업으로 부각되고 있는 스마트 농업이 농업·농촌이 청년문제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확대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율리 "많은 지자체가 조세상 청년기준을 39세까지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청년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청년기본법상 34세로 된 기준을 39세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북형 청년수당', '대학생 직무인턴' 등 전북도 주요 청년정책을 소개하며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보내 청년들이 지속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끔 새 없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유호성 기자



송하진 전북도지사(사진 왼쪽)가 14일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참석해 "청년문제 해결 방안으로 농촌이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며 "뉴프런티어 사업인 스마트 농업 등 농촌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전북도청 제공)

반려동물 특화산업 주도

임실군, 오수 제2농공단지 입주기업 모집 본격 돌입

임실군이 반려동물 특화산업을 이끌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도할 오수 제2농공단지 입주기업 모집에 본격 돌입했다.

군은 오수면 금암리에 조성 중인 '오수 제2농공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20필지 10만9,754㎡(약 3만3,000평)에 대해 최근 분양공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들어갔다. 14일 밝혔다.

오수 제2농공단지 지역 특화산업을 한층 발전시켜 줄 기업 투자유치를 이끔 핵심 대상으로 반려동물 관련 지역특화단지 및 일반농공단지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 2021년 7월 조성공사 착공을 시작으로 현재 공정률은 50%에 달하는 등 올 6월 준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군에 따르면 분양 예정가는 9만1,770원/㎡(평당30만2,840원)으로 인근 산단에 비해 분양가가 저렴한 편이다.

농공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은 특화단지에는 반려동물용품 제조업, 일반단지에는 ▲식품 제조업 ▲1차 금속제조업 ▲비금속제조업 ▲금속가공제품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기타 제조제조업 등 폐수 배출시설과 특정 대기오염물질 배출 업체를 제외하면 대부분 가능하다.

입주기업은 투자 및 고용 규모에 따라 도와 군의 투자 보조금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수 있다.

입지 여건 또한 순천-완주 간 고속도로 및 오수역까지 5분 거리에 위치해 교통 접근성 및 면 소재지와도 밀접해 생활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다.

앞서 군은 지난해 기업 투자유치 지원 규모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기업유치 및 투자유치 조례 개정안을 공포한 바 있다.

오수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전국 최초로 토지수용 없이 100% 보상 협



의를 마친 적극 행정의 우수사례로 주목받기도 했다.

농공단지 조성공사가 마무리되면 지난해 8월 문을 연 오수 팻추모공원과 함께 군의 반려동물산업 클러스터 기반 구축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반려동물산업 활성화는 물론 지역 내 많은 일자리 제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실 민 군수는 "오수 제2농공단지는 도내 산업단지와 비교하여 합리적인 분양가격과 다양한 지원 혜택으로 입주업체의 부담을 최소화했다"며 "미래 10대 전망 산업인 반려동물 클러스터 구축사업과 연계하여 반려동물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임실=진흥영 기자

“방역수칙 준수 하 정상등교 원칙”

도교육청, 오미크론 대응 학사 운영방안 마련
학급 내 등교중지 학생 50% 이상일 때 원격 전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하에 정상 등교를 원칙으로 확진자 발생 시 학급단위의 원격수업 전환을 하겠습니다"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14일 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육 결손 최소화 위한 '오미크론 대응 2022학년도 1학기 학사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도교육청 방안 따르면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하에 정상등교 ▲코로나 확산 현황을 고려한 학교중심 대응체계 전환 ▲확진자 발생 시 최소범위(학급개별화) 원격수업 전환 ▲원격수업은 실시간 쌍방향 화상(소통)수업 진행 등을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다.

이에 가장 눈에 띄는 점은 학교에서 신속한 확인과 관리가 용이하도록 학사운영 기준 핵심 지표를 일원화한 것이다.

이는 학내 재학생 신규 확진 비율 3% 또는 학내 재학생 등교중지(확

인+격리) 비율 15%일 때 탄력적 학사운영이 가능하도록 한 교육부 지표와 달리 도교육청은 '학급 내 등교중지(확진+격리) 학생 비율 50%'를 기준으로 삼았다.

이처럼 교육부의 학교단위 지표를 학급단위로 일원화한 것은 학교내 확진자 발생 시 이동수업, 급식, 방과후 활동 등 다양한 교육활동이 이뤄지는 학교공간에서 밀접접촉자를 정확하게 구분하고, 확산 방지를 위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학급개별화 단위 기준이 적합하다는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올해 1학기 학교의 학사운영은 학급단위를 기준으로 ▲등교수업 ▲학급단위 일부 등교+일부 대체학습 ▲학급단위 원격수업 3개 유형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먼저, 등교중지 학생이 없을 경우에는 모든 교육활동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등교중지 학생 비율이 50% 미만일 때는 등교중지 학생 대

상 맞춤형·탄력적 대체학습을 제공한다.

특히 대체학습의 경우 학생의 학습 효과 내실화를 위해 교실 수업 장면의 실시간 화상 제공을 기본으로 하되 학습자의 여건에 따라 온라인 콘텐츠 및 학습과제 제공으로도 가능하다.

다만, 학급단위 등교중지 학생 비율이 50% 이상일 때는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학교단위 원격수업 전환 시에는 반드시 도교육청과 협의해야 한다.

원격수업은 대면수업에 준하는 실시간 쌍방향 화상(소통)수업으로 진행한다. 이는 교육과정 상의 시간 표에 따라 일정한 장소에서 학생과 다양한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는 수업을 의미한다.

한편, 유치원은 놀이구려미, 온라인콘텐츠, EBS 교육방송, 가정과의 유무선 소통 등으로 운영 가능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3월 2일 정상적인 등교와 그 이후에도 지속적인 안정적인 교육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학사운영 지원체계를 더욱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https://www.sunchang.go.kr

“자연이 수놓은 보물”

관광 도시 순창

산길을 걷고 바위길을 오르고 구름다리를 건너고 일상에 썬표가 되어주는 아름다운 순창이 있습니다

순창군 SUNCHANG